

보령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개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처리



박상모 의원, 축사 부속사의 외국인 거주시설 인정 건의
 - 김정훈 의원 5분 발언,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요구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 19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인 1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주거의 필수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의 부속사를 외국인 숙소로 인정해 줄 것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주거의 필수 시설을 갖춘 합법적인 축사의 부속사를 외국인 숙소로 인정해 줄 것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또한, 20일부터는 위원회별로 보령시 만세보령강화회 출연 동의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각종 안건들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하게 된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담공무원 확충, 위기아동 보호 센터 마련, 재학대 예방 사례관리 및 아동치료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에서는 보령דם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의회의 의지를 공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구하고,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시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편 제공 및 이상반응에 신속하게 조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36회 임시회는 오는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